

투데이 칼럼

기적(奇蹟)은 염원하는 것이 아닌 준비하는 것

2009년 1월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태운 US 에어웨스트 항공기가 이륙 직후 새떼와 충돌하면서 엔진에 불이 붙어 뉴욕 허드슨강에 불시착하게 된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에서 전원 생존이라는 기록적인 결과로 이른바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알려진 항공기 사고다.

2010년 칠레 코피아포 인근에 있는 산호세 광산에서 채굴하던 33명의 광부가 광산 붕괴사고로 지하 622m 지점에서 매몰되었다가 사고 발생 69일 만에 구조된 사고도 기적적인 구조로 알려진 사고 가운데 하나다.

흔히 말하는 기적(奇蹟)이란 종교적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며 자연법칙에 입각한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수많은 기적에는 반드시 필연적 복선이 깔려있다. 허드슨강의 기적은 최고 노하우를 자랑하는 기장(캡틴)의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 마지막까지 구조기관과 교신하였고, 불시착하자마자 구



박종목
군산해양경찰서장

조세력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칠레 광산의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모인 기술진이 안전을 논의하고 힘 없이 굴을 파 물과 식량을 전달해 69일간 땅속 생존이 가능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수많은 일상이 반복되고 노력하고 준비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해안사고 역시 우리는 기적을 일궈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선장은 마지막까지 승객과 선원을

책임져야 한다. 배보다는 인명을 최우선으로 구조기관이 도착할 때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빠른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일상에도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장비점검은 물론, 특히 사고 사실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통신기와 위치발신장치는 반드시 생방송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

해양경찰 역시 사고 해역이 어디든 가장 일찍 도착할 수 있는 민간의 준비를 하고 구조에 전문성을

기울 수 있도록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야 한다.

수심이 낮아 접근할 수 없는 곳이면 그에 대한 차선책을 항시 염두에 두고 항공과 해상에서 동시다발적인 구조훈련을 꾸준히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적의 종점에는 개인의 안전의식이 있다. 아무리 완벽한 구조시스템이 갖춰졌다 한들 스스로가 행기는 안전만큼 견고한 것은 없다.

비상구와 구명장비 위치를 꼼꼼하게 살피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요원의 지시를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기적을 일궈내는데 복선인 동선에 배경이 되는 것이다.

기적은 염원하는 것이 아닌 준비하는 것. 오늘 내가 준비한 안전이 기적의 결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담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독자제언

언론 및 경찰 등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아직까지 보이스포싱 사고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처음에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을 환급한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와 같은 수법이 널리 알려진 뒤에는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였다.

사기 유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유형은 ▲국세청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하여 세금·연금 등을 환급한다고 유혹하여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형태, ▲신용카드사·은행·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신용카드가 동용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재너를 납치하였다거나 자녀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형태, ▲검찰·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

보이스피싱 사기, 유형을 알면 예방 가능

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동창회·종친회 명부를 입수한 뒤 회비를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형태, ▲택배회사나 우체국을 사칭하여 우편물이 계속 반송된다는 구실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형태, ▲가전회사나 백화점 등을 사칭하여 경품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구실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하는 형태, ▲대학입시에 추가로 합격하였다며 등록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형태 등 다양하다.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안에 전화번호 등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종친회·동창회·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하여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 관계를 재확인한다.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표시가 없거나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는 받지 않는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를 주의한다.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속아서 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하여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

민약에 보이스피싱에 속아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에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는 보이스포싱 피해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입금액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융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 ▲금융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자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형을 알고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겠다.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실재훈 순창경찰서 순회파출소 경위

사설

전북 발전은 예산 확보가 말한다

전북 발전은 예산 확보가 말한다. 예산 확보가 없다면 지역 발전 계획은 그 어떤 것이라도 수포로 돌아간다. 아무리 거창하게 공표를 했다해도 그것은 그렇다. 전북도가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동을 걸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할 말이 있다. 지역발전을 약속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찌 이상하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하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그뿐이라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발전 청사진 공표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날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 요즘이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이 큰사업들을 발굴했던 거 말이다.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 발굴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 발굴이 능사가 아니지 싶어서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아직 그게 없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전북도와 전 발연을 책잡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말

이나면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올해 평가를 보여줘야 한다. 도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중에 으뜸 기대는 증액된 예산 확보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야 하는데 그게 없음은 예산이 부족한 탓이다. 내년도 예산도 소액에 그치는 증액이라면 기대박이다.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을 반드시 추진시켜야만 한다. 큰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도 지역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는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부처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또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각각의 사업들을 본래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그뿐이던 전북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된다. 그걸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힘써야 한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항상 똑같다. 그것은 지역의 발전이다. 젊은이들은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기 바란다. 학생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고용도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전북도는 증액된 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주기를 바란다.

전북도, 인구감소 해결책 찾아야

전북도는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민해야 할지 묻고 싶을 것이다. 그래도 정성의 갈피를 잡다보면 우선적으로 꼽히는 게 인구 감소이다. 다달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전국에서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는데 올해라고 그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군산과 남원의 문제 때문에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인구 유출이 매달 계산 되는 판에 속수무책은 말 안된다.

지역의 현실을 보면 앞으로도 역전될 기미가 없다. 전북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개뿤은 분명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해 전부터 그런 게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러고 있다. 전북도는 혁신도시가 인구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군산과 남원에서 발생한 약재 때문에 전북 탈출을 작심한 이들이 늘고 있는 게 팩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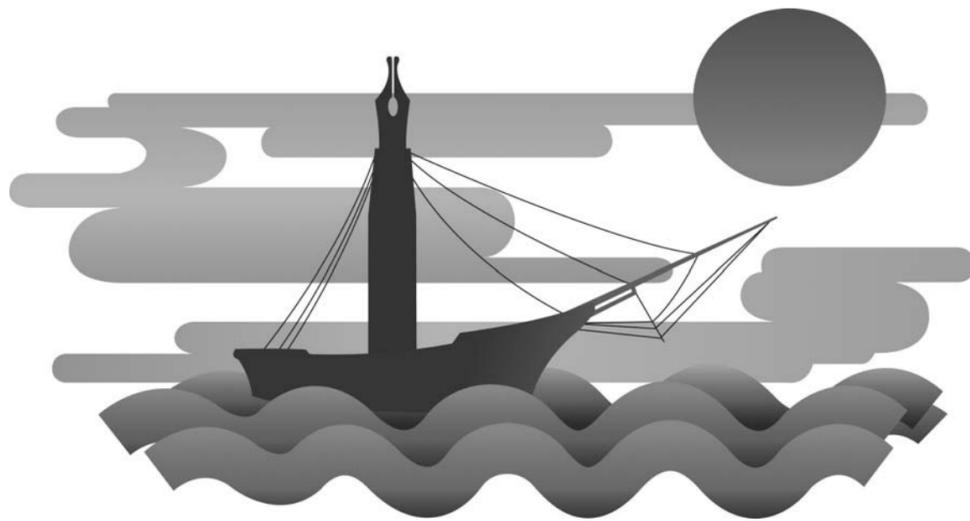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 앞에서 이마를 짚어야 한다. 인구 유출의 역사가 오래인데 혁신도시

에만 미련을 둔 채로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허튼 것이 아니다. 이제 전북은 고령자들의 고장이 돼버렸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고장을 지키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분발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미래 비전 제시가 중요하다. 미래 비전 제시는 지금 영양가가 별로 없다.

전북도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현실의 살림살이를 먼저 챙겨야 한다. 현재 전북의 인구가 180만이지만 180만 명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현실을 특별히 보아야 한다.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져버린 현실에 도민들은 정신이 사나다. 정면이지 이 난감한 사태가 개선되지 않다면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전북도는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현재 전북도는 희망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원성을 듣기 전에 평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